

시지정 문화재(무형민속)

1995년 6월 26일 지정

전승자: 후나바시 대신궁 악부

후나바시 대신궁의 가구라

헤이안시대의 서적인 “일본 삼대 실록”에는 ‘시모후사노쿠니 오히노카미(시모후사 지방의 오히 신)’라는 이름이 나오고, “엔기시키”의 ‘신사 일람’에도 ‘오히 신사’라는 이름이 나온다. 이 오히 신사는 현재의 후나바시 대신궁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라는 경내 가구라전에서 1월 1일, 1월 3일, 입춘 전날, 10월 20일의 예제, 12월의 니노토리 등의 날에 봉납되며, 4월 3일 스이진사이 의식 때는 후나바시 어항에서도 공연된다. 대신궁 악부 사람들이 전승하고 있으며, 현재는 현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은 다음의 8개 춤이다.

①미코마이 춤, ②사루타마이 춤, ③오키나마이 춤, ④지노리마이 춤, ⑤다노카미마이 춤, ⑥히루코마이 춤, ⑦에비스 다이코쿠마이 춤, ⑧산진마이 춤.

이 가운데 에비스 다이코쿠마이 춤은 입춘 전날에만 공연된다.

사용하는 악기는 무악에 사용하는 가쿠다이코 북과 시메다이코 북, 피리이며, 각 한 명씩 연주한다. 현재 대신궁에서 공연되는 가구라의 유래는 명확하지 않지만, 곡목의 구성을 보면 12곡을 기준으로 하는 ‘12좌 가구라’ 계통으로 추정된다. 히루코마이 춤과 같이 바다와 깊은 관계가 있는 곡목이 소중히 여겨지고 있는 것도 후나바시가 에도 만에 접한 좋은 어장을 지닌 지역이었다는 것과 관련된 특색이라 할 수 있다.

후나바시시 교육위원회